우암학원 창학 75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SINCE 1952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본점·여신사업부·문흥지점·양산지점·운암지점·매곡지점·첨단지점·동림지점·동광주지점·각화지점

1952년 4월 20일 창간 제22535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음력 6월 20일 2025년 7월 14일 월요일

폭염 식히는 단비 광주·전남지역에 비가 내린 13일 시민들이 우산을 쓴 채 광주시 동구 충장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이날 광주·전남지역은 17일만에 폭염특보가 해제됐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RE100 산단 조성…"서남권이 유력 후보지"

긴 해수면에 풍량·일조량 등 풍부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최적지
전남 생산 재생에너지로 산단 조성 광주 첨단산업에 공급 '선순환'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RE100'(기업용 전력을 재생에너지로만 조달하는 정책)산단 조성을 구체화하면서 광주·전남이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 거점으로 발돋움할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련기사 3면〉

전남 서해안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통해 전남에 국가산단을 조성하고 광주 첨단산업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최근 올 하반기까지 RE100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마련하는 내용의 'RE100' 국가산단 조성 로드맵을 발표했다. 범정부 협의체(TF)를 구성해 특별법 제정에 나서는 방안도 공개했다. 산업단지 기업유치를 위해 규제 철폐, 전기요금 감면, 정주여건 조성 등 파격적 혜택도 제공될 예정이다.

김 실장은 특히 RE100산단 대상지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서남권이 자연스레 후보 지역으로 떠오를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사실상 전남을 유력 후보지로 꼽았다. 울산 등 풍력발전에 강점을 가진 지역을 언급하기도 했다.

광주, 전남·북지역은 재생에너지 발전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광주·전남은 전국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관련 인프로가 집중돼 있다.

전력 계통 문제로 발전 허가가 중단된 까닭에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세는 멈췄지만, 전남은 넓은 평야와 긴 해수면, 풍부한 일조량과 풍량 등 RE100 산단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의 RE100 산단 입지로 전남이 가장 먼저 언급되는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 목포에 RE100 산단 전용 국가그린산단 조성을 약속한 바 있다.

구체적 입지는 미정이나 전남도가 해남과 영암 일원에 AI 데이터 센터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유치를 추진 중인 기업도시 '솔라시도'가 수혜 대상지로 꼽힌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지역에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전력 수요를 충족할 만큼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기 때문이다.

'이재명식' 공약 추진 속도라면 서남권 RE100 산단 조성이 빠른 시일내에 본궤도에 오를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후보시절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도 "전남이 신재생 에너지 생산지에 머물면 안된다"며 "RE100기반 산업 중심지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전남도는 'RE100' 국가산단 조성 로드맵에 맞춰 "정부와 함께 미래 에너지신도시 모델 만들겠다"고 반겼다. ▶2면으로 계속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RE100 (Renewable Energy 100)

기업이 제품생산에 사용하는 전력을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조달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글로벌 캠페인이다. 삼성, 현대차그룹 등 국내 주요 기업과 벤츠, 볼보, 애플 등 세계적 기업이 RE100을 충족하는 제품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전남대·조선대 등 의대생 복귀 선언… 의정갈등 수습 국면

전남대와 조선대를 비롯해 학교를 떠나있던 전국 의대생이 전격 복귀를 선언해 의정갈등이 수습 국면에 접어들지 관심을 모은다.

학생들의 복귀 길을 열어주기 위한 정부와 대학의 대책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한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12일 국회 상임위,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함께 입장문을 내고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과대학 교육 및 의료체계 정상회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의대생들이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해 '동맹 휴학'에 나선 지 약 1년 5개월 만이다.

의대생들은 이후 지난해 7월 정부가 유급 면제와 국시 추가 실시 검토를 제시했음에도 복귀를 택하지 않았고, 올해 4월 정부가 의대 증원을 되돌리면서 복귀를 유도했을 때도 대다수가 '등록 후 수업 불참' 등의 방식으로 투쟁을 이어갔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의료계 간에 해빙 분위기가 조성되고, 복귀를 희망하는 의대생들도 늘어나는 상황이 입장 선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의대생과 함께 의정 갈등 해소의 열쇠를 쥔 또 다른 주체인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전공의들의 경우 이미 지난달 '강경파'였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이 물러나고 '대화파' 한성존 새 비대위원장이 들어서며 복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전협은 오는 14일 박주민 국회 복지위원장을 만나 이같은 전공의 의견을 전달하고 비공개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이어 19일에는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전공의들의 의견을 한데 모은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의 요구안이 구체화하는 것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의대생과 전공의가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면 장기화한 의정 갈등도 마침표를 찍는 셈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알림 서비스 신청하세요

'국민비서 누리집' 오늘부터

행정안전부는 국민비서를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금액을 사전에 알려주는 서비스의 가입 신청을 14일부터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소비쿠폰 안내 알림서비스를 받으려면 카카오톡·네이버앱·토스·금융 앱 등 17개 모바일앱 또는 '국민비서 누리집'을 통해 국민 비서에 가입하고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안내' 서비스를 선택하면 된다.

국민비서는 19일부터 소비쿠폰 사용 종료 시까지 시기와 대상에 맞춰 지급금액, 신청 기간·방법, 사용기한, 이의신청에 따른 변경금액과 대상자 정보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다만 국민비서로 안내받았다고 소비쿠폰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것은 아니다.

안내받은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소비쿠폰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행안부는 또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14~31일 신규가입 이벤트를 한다. 추첨을 통해 신규 가입자 500명에게 소정의 음료 쿠폰을 준다. /연합뉴스

전남 해수욕장 안전요원 구인난 ▶6면
타이거즈, 별들의 잔치에서 빛났다 ▶18면

광주, 세계문학 중심 - 광주문학관 ▶22면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